

영암군, 내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접수

친환경축산 실천농가 대상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연리 1% 저리 신규 축산 농가도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친환경 인증 조건으로 지원

영암군은 오는 18일까지 '2021년도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친환경 축산육성을 위해 매년 200억 원을 연리 1%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친환경축산물·HACCP 인증 등을 받은 친환경

축산 실천농가,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등이며, 신규 축산 농가의 경우에도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친환경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은 농업인·법인 20억 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0억 원 이내이며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

2억 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억 원 이내이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영암군은 올해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17억2천5백만원(7개소)을 지원받아 축산신축, 식용란 선별포장시설 설치, 축사 깔짚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 축산관계자는 "친환경 축산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의 융자를 대폭 지원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 남악 도청한우 음식점, '자원봉사 우수기업 선정'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일 쌀·라면 등 기부...점심 나눔도

무안군은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도청한우 음식점(대표 장효성)이 2020년 (사)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하는 전라남도 자원봉사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업소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일 쌀, 라면 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무안군에 기부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지만 개업시부터 장애인과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 나눔 행사를 실천해 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에

서 주관한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달식은 취소되었지만 무안군의 요청으로 지난 11월 30일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장, 군 사회복지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업 현판을 걸게 되었다. 장효성 대표는 "나눔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



매"앞으로도 무안군과 협력하여 주변의 어려움을 함께 보듬을 줄 아는 따뜻한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군 자매 결연 도시' 경남 김해시에 '신안천사대로·하의로' 명예도로 생겼다

신안군은 자매결연 도시 경남 김해시에 1004성 신안군을 대표하는 제1호 명예도로가 생겼다고 12월 1일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 11월 12일 '도로명주소 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공고' 진행을 거쳐 ▲11월26일 '신안천사대로', '하의로'로 명예도로명 부여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김해시에서 지정한 명예 도로 는 김해시 진영읍을 관통하는 구간에 '신안천사대로', '하의로'로 도로명 명명했다. 도로명 명판은 지난 11월 27일 설치했다.

또 노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봉하

마을 관광안내소 주변에 명예도로명 부여 경위와 의미를 알리는 안내판도 세웠다.

앞서, 양 지자체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출한 고장이란 역사적 동질성과 국제슬로시티 회원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올 10월 14일에는 신안군 하의도를 김해시의 섬으로 선포하고, 상징조형물 설치와 제막식을 갖고 명예 행정구역으로 지정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자매도시 간에 지역의 상징성을 내포한 명예 도로명 부여와 명예 행정구역 지정은 기반으로 상호간에 특별한 친선우호 관계를 다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안전한 겨울나기' 목포시, 겨울철 도로제설반 발대식

내년 2월까지 적설·결빙 대비

목포시는 지난 1일 제설장비 차고지에서 겨울철 도로제설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종식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주요 제설장비와 제설제 등을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시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 도로의 적설과 결빙에 대비하기

위해 제설차량 6대, 이면도로 전용 살포차량 5대, 도로정비차량 2대, 지게차 2대가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고 비탈길 등 취약지역과 통제 예상 구간에 모래 적사량 142톤을 사전 비치하고 제설제 730톤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폭설과 같은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해 건설기계연합회와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목표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시민들께서도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신안 저녁노을미술관, '애기 동백꽃 회화전'

내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신안군은 12월 4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저녁노을미술관에서 애기동백꽃 회화전을 연다. 지난해 전시를 열었던 허주 강종렬

작가를 비롯하여 우암 박용규 화백, 목판화의 대가 홍선웅 등 13명의 작가 작품 43점이 전시된다. 본 전시에 맞추어 새롭게 제작된 신작이 대부분이나 오랫동안 동백을 그린 작가들의 애장 작품도 포함되어있

다. '바다 위 천사의 정원'이라는 주제의 이번 전시는 회화, 판화,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애기동백에 대한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자 기획되었다. 전통목판화연구자이자 목판화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홍선웅 작가가 출품한 '산대화'는 애기동백의 또다른 이

름이기도 하다. '국도' 연작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일대를 목판에 담은 김억 작가는 미지의 공간인 신안을 새롭게 만나 섬과 애기동백 신작을 선보인다. 저녁노을미술관 설립에 큰 역할을 한 우암 박용규 화백도 10m에 이르는 대작을 새롭게 제작하여 전시한다. 기동취재본부

2017년 이어 재인증

영광군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인증기관'심사에서 유효기간 연장 기관으로 선정됐다.

영광군은 지난 2017년 11월 가족친화인증기관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2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군은 그동안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특히,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족친화 지원제도(결혼

장려금 지급, 예비맘 간담회 실시, 자녀양육비 전국 최다 지원, 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제,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선제적 확대 시행으로 공공기관 위라벨 문화 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광=서희권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 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